



윤상원 열사 묘역 찾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이 21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를 마친 뒤 윤상원 열사 묘역을 찾아 묘비를 바라보고 있다.

# 광주찾은 이낙연 “임기 짧다면 짧은대로 불꽃처럼 일하겠다”

“국가적 위기 극복 막중한 책임 외면할 수 없어 당대표 출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등 록한 이낙연 의원은 21일 '7개월 당대표' 논란에 대해 “기간이 짧다면 짧은대로 불꽃처럼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의 짧음을 가지고 탓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으면 내년 3월에 대표를 그만둘 가능성이 있다”며 “그럼에도 출마를 결심한 것은 지금이 너무나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가 3중, 4중으로 겹쳐 있고 그런 위기를 거대여당을 이끌며 극복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말하자면 저의 책임의식으로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의 당대표 7개월은 보통의 7개월과 다르다고 했다.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의 초기 태세와 자세를 정립하는 기간'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7개월 안에 21대 첫 정기국회가 있고,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것들을 정기국회 안에 처리해야 한다”며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거대여당의 초기 태세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옮긴다는 것을 목표로 하되 여야간 협의의 진전에 따라 선택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며 “본회의는 서울에 두고 모든 상임위를 옮기거나 세종에 부처가 있는 소관상임위만 옮기는 안 등 여러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광역철도망을 호남권에서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광역철도망은 부울경, 대구경북, 대전권, 호남권 등 4개 권역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칫 위기대응이라는 명분 하에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하고 수도권 집중이 과중할 수 있어 세심할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 뉴딜

과 그린 뉴딜, 휴먼뉴딜 등 3대 뉴딜에 균형발전 뉴딜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도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구상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호남권 광역철도망 계획을 입안했으면 하고 가능하면 내년 예산에 전체구상을 다듬는 용역 예산이라도 반영하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방부의 적극성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전라지사로서 있을 때부터 (군공항 문제) 대처해 왔지만 아쉽게 생각한 게 국방부의 적극성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로 일하면서 대구공항 이전 부지 결정까지 했다”며 “광주공항과 대구공항의 사정은 다르지만 국방부 태도에서는 대구공항 이전에 훨씬 더 열심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광주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방부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들은 무엇이 지역 이익에 더 유리할지 실용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인호 기자

# 양향자, 최고위원 출마... “재집권 위해 경제 전문가 있어야”

정권 재창출 동력 ‘경제’ 지목... “文정부 성공에 기여”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선·광주 서클)은 21일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과거 한 차례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바 있는 양 의원은 정권 재창출의 동력으로 ‘경제’를 지목하며, 당내 경제 전문가로서 ‘한국판 뉴딜’ 등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 성공에 기여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대중 대통령은 경제대통령이 목표였다. 노무현 대통령을 끊임없이 흔들었던 것도 경제”라며 “민주당 정권을 잇는 바 있는 양 의원은 경제대통령이다. 정권 재창출의 힘도 경제에 있다”고 운을 폈다.

그러면서 “국민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민주당의 재집권 의지와 전략을 판단할 것”이라며 “후

보자 중 경제를 챙길 기업전문가, ‘문제인 뉴딜’을 이끌 미래산업 전문가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 제 쓰임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양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는 경제 전대요, 미래 전대다. 최고위원 선거 2표 중 1표는 반드시 경제를 위해 사용해 달라”며 “당대표와 최고위원 8명 중 한명쯤은 실무경제 경험 있는 사람, 미래 산업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 국회 온 추미애, 보란듯 윤석열 부인 문건 읽어

탄핵 소추안엔 ‘웃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야당의 탄핵 소추안 발의에 대해 ‘웃음’으로 반응했다.

추 장관은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미래통합당·국민의당이 추 장관 탄핵 소추안을 접수했다”고 밝히자 활짝 웃었다.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전날 추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는데, 양당은 추 장관이 인사·지휘권을 남용하는 등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당(103석)·국민의당(3석)만으로는 탄핵 소추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추 장관의 탄핵 소추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추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해 있다.

전망이지만, 가결될 가능성은 작다. 추 장관의 미소는 이 점을 인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장모 최모씨에 관한 자료를 읽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

착되기도 했다.

추 장관이 본회의장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살펴본 자료는 ‘토지 매각 추진 및 대출금에 대한 연체 발생’ 등의 제목 아래 김건희 씨의 회사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었다.

# 임종기 도의원, 경제자유구역청 조합위원 추천 철회 촉구

“전남도의회 의결 거치지 않은 의장 임의 추천은 무효”



평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라남도도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


장 임종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20일 전남도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라남도도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

장이 추천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조합위원을 즉각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 나선 임종기 의원은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 질서 유지와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직무를 가지지만, 여기에서 의회를 대표한다 함은 조직적·의전적인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한다는 것이지 지방의회 의사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의회에서

추천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의장이 추천하는 행위는 마땅히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서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불신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장이 추천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조합위원을 즉각 철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